

국가대표 인문도시로 위상 'UP'

전주시,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로... 구도심 일대 축제장으로 변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사랑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이 주제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전국 도서관과 출판사, 서점 등 출판·독서·도서 관련 기관과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 축제다.

독서대전이 전주에서 열린다는 것은 인문학 도시 전주가 책 읽는 도시이자, 독서진흥에 앞장서온 지자체로 널리 인정을 받은 셈이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진흥에 앞장서온 전주시를 올해의 '책 읽는 도시'로 선포하고, 개최도시인 전주시, 주관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하는 책과 독서 관련 박람회이자 문화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함께 준비해왔다.

전주시는 올해 독서대전을 찾는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독서 관련 이벤트와 인문사회화강연, 문화공연, 전시 프로그램, 학술·토론행사 등을 준비했다.

특히, 이번 축제가 교양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행사가 아닌, 다양한 독서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독서축제로 만들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왔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로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 구도심 일대는 축제장으로 변화하게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한공수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 총감독은 2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의 향연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과거 한글고전소설 등 완판본으로 책을 찍어냈던 출판의 역사를 지닌 도시인 전주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는 고은 시인이 기초강연을 통해 축제의 품격을 높이게 된다. 또, 김용택, 박웅현, 강원국 등 유명작가들은 물론 심리학, 사회학, 광고·홍보 등 유익한 인문사회화 강연이 마련된다. 최명희문학관의 경우, 전북 지역의 24명 작가들과 함께하는 '시인, 작가와의 수다'를 통해 시 쓰기, 방송 글쓰기, 비평하는 방법 등 실천 노하우를 풀어놓을 예정이며, '흔들'을 집필한 최명희 작가의 미공개 엽서도 최초로 전시된다.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는 안도현, 성석제, 정도상 작가와 함께하는 1박 2일 '야(夜) 한밤 인문학 콘서트' 등을 통해 책의 힘, 독서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 대령의 서재를 채운 16권의 추천 도서 등 12가지 다채로운 전시가 펼쳐진다. 공예품전시관에서는 '지역출판의 역사와 작가와 명사들이 권하는 책들'을 엮어놓은 특별전시'가 진행되며, 한옥마을 공공시설과 한옥호텔, 커피숍도 축제장소로 활용된다.

시는 이번 독서대전을 보다 알찬 축제 만들기 위해 시민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학습축제인 '제12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도 독서대전이 열리는 3일간 국립무형유산원 야외 마당에서 열기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독서대전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시민들이 가족·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책과 함께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비빔밥축제' 자원봉사자 '비비미' 모집

조직위, 9월 19일까지

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주비빔밥축제' 현장에서 함께 일할 자원봉사자 '비비미'를 9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관람객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안내를 담당할 안내팀, 비빔전설, 무궁콘서트 등 음식 관련 메인행사를 함께 준비할 음식행사팀, 비빔문화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진행해나갈 공연·이벤트팀,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 지원을 담당할 행사지원팀 등 네 개 분야로, 총 10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비비미 참가신청은 전주비빔밥축제 누리집(www.bibimbapfest.com)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bibimbapfest@naver.com)로 제출하면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비빔밥축제조직위원회(063-063-231-8969)로 문의하면 된다.

비빔밥축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행사 유니폼과 소정의 활동비, 축제기간 중 식사 및 간식이 제공되고,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됨과 함께 전 기간 활동 완료시 참여 증서와 기념품이 지급된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지름 4m 싱크홀 발생

전주에서 지름 4m 싱크홀이 발생했다.

2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인도에서 지름 4m, 깊이 2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해 전주시가 긴급 보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주시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날 오전 7시부터 복구를 시작했다.

이날 싱크홀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관할구청은 강한 비로 인해 도로안에 있던 토사가 비에 휩쓸려 지반이 침식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상민 기자



완산경찰 화산지구대, 아파트 침입절도 예방활동

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는 29일 관내 중화산동 및 태평동 소재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침입절도 예방을 위해 주민 상태 방송 및 홍보전단지 배부하는 등 절도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아파트 단지에 직접 방문해 고층 아파트의 빈집침입절도 예방을 위해 출입문 및 베란다, 창

문 시정을 철저히 하고 저층세대의 경우 도시가스배관이나 베란다를 이용한 절도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방범시설이 취약한 후미진 곳에 배치하는 수상한 사람을 발견시 112 신고를 당부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센트드 설치 등 시설 보안을 요청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도심 차량속도 제한 정책, 전국 확산

안전한 도로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전주시가 앞서 도심 차량속도를 제한한 것을 전국 정책으로 확산시키기에 나섰다.

앞서, 전주시는 전주역 앞 첫마중길의 차량 속도를 기존 60km/h에서 40km/h로 대폭 제한하고, 기존 직선도로를 곡선도로로 바꿔 차량들이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도록 하는 등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전주시는 29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첫마중길

과 같이 도심 내 차량제한속도를 30~50km/h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심 속도 하향조정 5030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도시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주시와 다른 교통 선진국과 같이 도심 차량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며,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km로 조정해 교통안전에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소속된

국가의 대부분이 도심 제한속도 50km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WHO(세계보건기구) 역시 50km 제한을 권장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미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들만 가득했던 전주역 앞 첫마중길의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낮췄고, 곡선도로로 만들어 차량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서곡~추천대교간 도로 역시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완만한 곡선으로 선형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어 운전자와 보행

교통안전 대토론회 개최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주목

자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가 된다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해 전주에서 발생한 2303건의 교통사고 중 직선도로에서 발생한 건수는 2250건(98%)인데 반해, 커브곡선도로 사고 발생 건수는 50건(2%)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또한 도심의 생태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전거 정책과를 신설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자전거 타는날 운영, 체험행사 등을 추진 중이다. /인재용 기자

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 신임 의무경찰 가족초청 간담회

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는 29일 덕진방순대 식당에서 전입 6개월 미만의 신임 의무경찰 가족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임대원 가족들과 의경어머니회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주요 업무, 시설현황, 특수시책 등을 담은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부대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실 및 부대시설을 견학했다.

김중화 방순대장은 "신임대원들이 안전하게 부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판돈 1100만원대 도박판 주민 4명 경찰에 붙잡혀

판돈 1100만원대 도박판 벌인 주민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29일 도박 혐의로 김모(60)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가량 임실군에 위치한 한 가건물에서 판돈 1100만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 등 4명을 현행범으로 붙잡고 현장에 있던 현금 1190만원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심심풀이 삼아 쳤다"고 진술했다. /이상민 기자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장미



호박



미나리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상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용, 이희희

감사 정무성, 조미희



농민과 도시의 상생협력을 지향하는 전주농협 Good 농산물